

GWANGJU BIENNALE 2012 SEPTEMBER 7 - NOVEMBER 11, 2012

Round Table

목표 관람객 30만명 유치 가능할까



개막 16일째 2만6000명, 2010년 절반도 못미쳐 입장권 판매도 저조... 적극적 유치 대책 세워야

잔칫상이 푸짐해 배탈날까 걱정했을까. 최근 개막한 제 9회 광주비엔날레의 초반 흥행 물이에 적색불이 켜지고 있다. 축제에는 손님이 많아야 분위기도 살고 흥행에도 성공하는 법인데, 예상 밖으로 관람객이 저조해사다. 이대리라면 목표로 한 관람객 30만명 유치도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광주시와 비엔날레재단이 적극적인 유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개막 16일째를 맞은 지난 22일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2만6601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663명 정도로, 입장권 없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무각사·대인시장·광주극장 관람객(1만9052명)은 제외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같은 기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관람객 수 5만8354명(하루 평균 3647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다, 대인시장 등 나머지 전시장 관람객을 모두 합쳐도 4만 5653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역민들이 올 광주비엔날레를

느긋하게 관람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전기간 입장권 판매 현황도 저조하다. 현재까지 고작 131장이 팔렸을 뿐으로, 비엔날레재단이 40개국 92명(팀)의 작가가 내놓는 작품(303개, 1478점)을 한번에 관람하기에는 미흡할 것을 우려해 내놓았다는 게 무색한 지경이다.

여기에 개막 전 예매 입장권 판매도 저조해 광주시가 적극적인 홍보·관측 활동에 나선던 지난 2010년(10억 가량)에 견줘,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목표로 한 관람객(30만명) 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비엔날레 전시장 외 무각사·광주극장·대인시장으로 분산된 전시관의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다, 산바 등 가을 태풍도 초반 관람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현대미술은 난해하다, 모호하

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평면 회화에 익숙한 관람객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상·설치 작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점, 여수박람회 등 대형 국제행사가 많아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티켓 마케팅이 힘들었다는 점 등도 저조한 관람객 유치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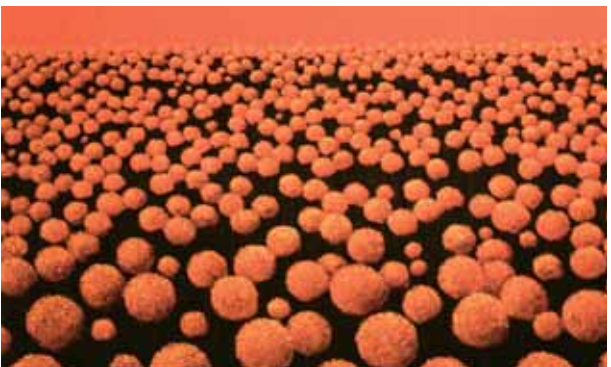
지역 미술계 안팎에서는 입장권 판매가 비엔날레 흥행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잣대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비엔날레재단이 관광업계와 연계한 적극적인 관람객 홍보·유치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미술은 난해하다,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태국 작가 리크리트 티라비자의 탁구대를 형상화한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이 탁구를 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파꽃의 향연, 톡톡 튀는 디자인



방개양 작 '파꽃'

흔하다 흔한 파꽃이 화려함으로 시각의 향연을 벌이고 한 견에서는 모자라 만 원짜리를 올려놓는가 하면, 사진을 티셔츠에 프린트한 디자인적 작품들이 가득하다.

방개양·이몽롱씨 26일까지 무등갤러리 지원전

방개양씨와 이몽롱씨가 26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여는 전시는 파꽃의 향연과 톡톡 튀는 디자인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무등갤러리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방씨는 파꽃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시골 파밭의 흔하디 흔한 파꽃 풍경에 예술적 시각을 얹어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한 작품이 적지 않다.

이씨는 '난, 예술가가 아니다!'는 주제로 관람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디자인 작품 50여점을 모아놓았다. 모루(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를 올려놓은 '잠사, 쉬어가세요'라는 작품 등이 눈길을 끈다. 문의 062-236-252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5일 오후 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심포지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관)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책임교수 김대현) 등이 공동주최하는 학술심포지엄이 25일 오후 3시 광주YMCA무진관에서 열린다.

'호남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계승 발전 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호남지역의 기록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집대성, 이에 따른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 경

쟁력을 찾아보는 행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대현 교수가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업 성과와 한계, 발전 방안', 김경숙(조선대 교수·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소장)씨가 '호남학 현황 및 발전 방안-한국학자료센터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선 함민호(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박광석(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한예원(조선

대 한문학과 교수), 김성(지역활성화 연구소장)씨 등이 참여한다.

지역문화교류재단은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과 호남지역 국학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호남권역 기록문화 유산의 발굴·집대성 콘텐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단계(2010~2012년) 3개년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서깊은 식당 12곳, 맛의 비결은

'문화통&Asa' 가을호 '광주·전남 오래된 한식당' 다뤄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통&Asa' 가을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의 특징은 광주·전남에서 대를 이어 온 음식점 이야기를 다룬 '광주·전남의 오래된 한식당'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가장 오래된 식당은 102년 역사의 나주 '하얀집' 곰탕집, 해남 천일식당(1924년), 삼대 광양불고기집(1930) 등 유서깊은 식당 12곳의 역사의 맛의 비결을 다뤘다.

또 1953년 시문학사 주최로 열린 미당서정주 송별기념 '시의 밤' 방명록과 1956년 '얼굴과 얼굴' 모임 주최로 열린 신춘문에 입상자 축하연 사진도 발굴 게재했다.

권두인터뷰로 50여 규모의 재단법인 서암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을 제정했던 권영열 화천그룹회장을 만났으며, 원로가 회고하는 50년대의 총장당 12곳의 역사의 맛의 비결을 다뤘다. 또 광주비엔날레의 공동 여성감독 6명이 추천

한 농쳐서는 안될 12작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호남신대학교의 '풍당 클래식' 강연 현장을 찾았다.

그밖에 올해 3회 행사를 치른 광주 국제아트페어에 대해 날카롭게 진단했으며 차세대 예술인으로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오페라극장의 주역 김지은씨를 만나볼 수 있다. 가격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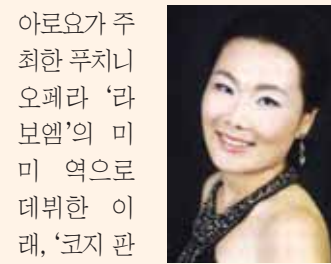
25일 소프라노 이승희 귀국 독주회

가을 밤에 듣는 낭만주의 선율

소프라노 이승희 귀국 독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후기 낭만주의와 신 낭만주의를 아우르는 곡들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리스트의 '빅토르 위고의 4개의 시에 의한 가곡', 코른골드의 '마리에타의 노래', 미국 작곡가 바버의 연가곡 '은둔자의 노래' 전곡이다. 피아노 반주는 임리씨가 맡았다.

전남대 출신으로 뉴욕 맨하탄 음대를 거쳐, 뉴욕주립대 스토리브룩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씨는 미국에서 활동 당시 마르티나



아로요가 주최한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의 미미 역으로 데뷔한 이래, '코지 판 투테', '카르멘' 등에서 주역을 맡았다.

또 뉴욕 데이비드 아담스 아트 송 공연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오는 10월 13일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도 앞두고 있다. 문의 010-6716-09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존 라이크만 교수 초청 25일 시립미술관 강연

광주시립미술관은 25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존 라이크만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강연회를 연다.

질 들뢰즈와 미셀 푸코 연구의 권위자이자 예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그는 이번 특강에서 '현대미술에서 현대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컨템포러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무엇이 글로벌적 인가'라는 질문과 분리될 수 없다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